사스 특허 '글로벌 경쟁'

사스관련 연구에 대한 특허권 신청을 놓고 전세계 제약회사와 대학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한쪽에선 사스의 공포가 세계 전역을 휘감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민간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백신, 연구실험, 제약부문 등 큰 이권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허권 신청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열기가 윤리적으로 온당한 행위인지에 적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특허권을 신청한 곳은 캐나다·홍콩의 연구소와 대학,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암 연구소 산하에 있는 유전공학센터는 사스 질병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처음으로 해독한 곳으로서 이 연구소는 최근 유전자 해독에 관해 미국에 조건부 특허권을 신청했다.

또 홍콩 대학교의 마릭 페이리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지난 3월 최초로 사스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성공해 현재 몇몇 기업들과 특허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CDC도 사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최소 1건의 응용분야의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스관련 특허 신청이 봇물을 이룬다 해도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결국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일부 극소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아카시아 리서치의 아미트 쿠마르 회장은 '특허권은 로또 복권과 같다'며 이같은 특허 열풍을 꼬집었다.

대상, 인공감미료 특허 분쟁에서 패소

영국 법원이 인공감미료 특허권을 둘러싼 대상과 일본 아지노모토(味素)간의 분쟁에서 아지노모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런던의 한 고등법원은 이날 아지노모토의 유럽법인이 저칼로리 인공감미료인 아스파르테임을 사업적 규모로 생산하는데 대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지노모토는 그동안 아스파르테임의 제조공정이 자사가 보유한 핵심 지적재산권의 하나라며 이 제품을 사업적 용도로 대량 생산해 왔다. 앞서 대상은 네덜란드의 자회사와 함께 아지노모토의 이같은 특허는 선행기술의 증거가 있으며, 이는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국 법원에 제소했었다.

런던 고등법원의 래디 판사는 아지노모토의 제조 공정이 직관적이지 않고 '당대에 인정된 지식'과 완전히 별개라는 전문가의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한편 영국 법원에서는 양사간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이 문제 가 다뤄질 것이라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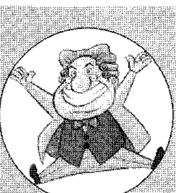
IBM, 특허 영향력 가장 좋아

미국 MIT 테크놀러지 리뷰와 CHI 리서치가 공동으로 발행한 특허 점수표에 따르면 IBM이 세계 IT 기업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러지 리뷰는 지난달 '2003 특허 스코어 카드'에서 IBM의 기술력 점수가 5,668점으로 2위 업체인 HP의 2배 이상이며, HP·썬·MS·EMC·델·오라클의 합산 점수보다도 높다고 평가했다.

테크놀러지 리뷰는 CHI 리서치와 산업별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 순위를 조사하기 위해 획득한 특허수와 기타 지표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표를 개발했다. 점수표에 있는 기술력 항목은 기업의 지적자산 파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획득한 특허수와 기타 지표들을 합산하여 전체 미국 특허를 '현재 영향력 지수'를 곱해 산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에 IBM은 3,288건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획득해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IBM은 총 2만2,357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는 2번째로 많은 특허를 획득한 캐논보다 약 7,000건 앞선 것이다. 또 이 기간 동안 IBM은 HP·인텔·썬·MS·델·애플·EMC·오라클·EDS를 포함한 미국 내 10대 IT 기업들이 획득한 전체 특허수보다도 많은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발명의 10계명 ⑧

반대로 해 보자

감수/오혜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